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우리나라 미래인재육성의 주춧돌 될 것

이경숙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온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반열에 오른, 그것도 풍부한 식량자원도, 부존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장을 이룬 국가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세계인들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역할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인재양성’이었다. 50~70년대 우리네 부모들은 자신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어왔다.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신을 희생해 자식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고, 이러한 부모들의 큰 희생과 더불어 국가·사회적인 교육 장려 및 지원 속에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80~90년대 우리

나라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OECD 가입을 통해 세계적으로 그 국력을 인정받았으며,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수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IT, 조선, 반도체 등 수많은 세계 1위 산업을 육성해내며 우리나라의 저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바야흐로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높아진 국가 위상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 경제인구의 노후대비 문제, 서민층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 우리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인재양성에 다시 눈을 돌려본다. 예전처럼 교육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국가 전체적 빈곤으로 전국민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층들에게 대학교육의 문은 여전히 높고, 유학·어학연수 등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정부 장학제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장학제도 등도 이러한 고등교육 소외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부담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그들의 노후대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온 지금의 부모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야 할 많은 인재들의 미래가 경제적 이유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네 부모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훌륭한 주춧돌로 성장시키자는 현 정부의 의지로 지난 5월 7일 출범했다.

아직 출범 초기이지만,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약 10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09년도 기준 연간 2조 6천억 원의 학자금 대출과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출연금 확충과 더불어 자체 재단 채권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명실 공히 학자금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초석 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기존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방식을 재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출 금리를 1.5%p 인하하는 작은 성과를 거두

기도 했다.

또한, 민간 기부금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지원 장학사업에 활용하고자 다양한 기부활동을 전개해, 3개월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확보했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장학제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출범 후 업무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우리나라 인재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제도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자, 대학 등록금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 ICL)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득7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재학 중에는 상환의무가 유예되다가 취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신념이 담긴, 서민 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재학 중에도 매월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



이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부모의 부채로 남아 가계부채 증가, 학생 자립심 저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졸업 후 국가를 통해 받았던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고소득 종사자도 존재할 수 있기에 무상 장학금, 무이자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상존하고 있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어 왔던 현행 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 단순한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화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대출상환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금 마련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짊어졌던 부모들의 가계수지 개선 및 노후대비, 생활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립심이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모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본인소득 발생 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게 되므로, 학자금대출관련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도에 약 107만 명에게 10조 원가량의 학자금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 재학생 197만 명 기준 약 50%를 약간 웃도는 수치로 비록 영국(80%), 미국(74%), 호주(57%) 등 선진 학자금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보다는 이용률이 낮지만, 현재 20% 정도인 학자금 대출 수혜율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도 있다. 안정적인 대출재원 확보, 상환율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국세청의 조세징수 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소득 포착 및 징수체계 구축 등이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금융 노하우도 필수적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회수를 통한 재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관련 정부부처,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2010 년도에 시행될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수립, 전산개발, 제도홍보 등 성공적 시행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얼마 전 학자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 재단의 장학상담실을 찾았을 때가 기억난다. 장학금신청을 위해 장학상담실을 찾은 한 학생이 필자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말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학생은 분명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장학재단은 설립초기인 2009년 2학기부터 전국 15개 은행, 5,000여 점포에서 수행하던 학자금대출 업무를 재단체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습득해왔다. 그러나 약 38%에 이르는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및 관련서류 제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느낀 부분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 한국장학재단은 이 제도를 통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선진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장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섬김 리더십과 봉사의 미덕을 함양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전 임직원은 제도 준비와 성공에 만전을 기해 학자금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이 장차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갈 세계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 ■

필 / 자 / 소 / 개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시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숙명여대 교수를 거쳐, 정법대학 학장, 기획처장, 숙명여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사를,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지문위원회 위원장을, 산업인력관리공단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 27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서울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을, 대한적십자사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한국능률협회 제34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을, 창조근조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선진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

